



“생활주변 電波, 꽃알레르기증 惡化시킨다”

우리들 주변에 산재한 전파가 꽃알레르기증 증상의 하나인 결막염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일본 北里醫大연구팀의 동물실험결과로 알려졌다.

삼목 등의 꽃알레르기증상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삼목의 화분 그 자체는 조금도 증가하고 있지 않은 점에 착안한 이 연구팀은 담배 연기 등 신변의 환경요인이 꽃알레르기증의 증상을 어떻게 좌우하는가를 조사해 온 것.

실험과정은 미리 꽃알레르기체질을 만들어 높은 몰몰트상자를 2대의 19인치 텔레비전 사이에 마주보게 놓았다. 텔레비전의 스위치를 넣고 전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 텔레비전을 일정 기간 켜 놓은 직후에 삼목화분을 점안, 즉시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증상을 비교했다. 그 결과 텔레비전을 장시간 켜 놓을수록 결막염도 심해지는 경향이 보여졌고 48시간이 지나자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

marmot상자를 발포스티롤로 덮고 빛이나 울 등을 차단해도 같은 결과로 발포스티롤을 통해 새어나온 전파가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이러한 텔레비전의 영향은 스위치를 끈 시간과 함께 약해져 가 24시간동안 꺼는 후 2일째는 영향이 남아 있었으나 3일이 지난 후에는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한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marmot와 인간의 몸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간의 꽃알레르기증에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전파가 생물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다고 말하고 있다.

日 東北醫大 발표 “膽道閉鎖症은 先天性이 아니다”

지금까지 선천성질환으로 알려진 담도폐쇄증이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선천적이기 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이 많다는 보고가 최근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담도폐쇄증 센다이 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되어 주목을 끌고있다.

이 연구는 일본 東北醫大 소아과 大井龍司 교수팀이 발표한 것으로 작년 1년간 「담도폐쇄증전국등록제도」에 등록된 98명의 症例를 분석했다.

이 중 52명에 대해 출산직후 수유를 했을때 이 중 38명의 변색이 녹색에서

황색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는 담즙이 출생시에는 정상으로 분비되었으나 그 후 어떤 원인에 의해 發病되었음을 말해준다.

담도폐쇄증은 조기에 발견하여 肝臟과 腸을 직접 연결시키는 수술을 하면 50~70%의 환자는 완치되나 발견이 늦어지면 간장이식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난치병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이 증상에 대한 등록제도를 발족시킨지 2년이 된다. 앞으로 계속적인 데이터 축적으로 병의 원인 해명도 연구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美 루이지애나州 가장 엄격한 임신중절금지법 制定

폭행을 당한 경우 등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한 거의 전면적인 인공임신중절이 금지된,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임신중절금지법이 지난 6월 18일 보수적인 남부 루이지애나州에서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중절금지법은 여성폭행,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나 모체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 이 법에 위반하는 의사들은 최고 禁錮 10년, 벌금 10만달러(약 7천4백만원)의 형벌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는 1973년 연방최고법원판결에서 중절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석하였지만 앞서 유타州 등에서 중절

을 규제하는 州法이 성립돼 중절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해방운동조직은 재판에서 이 법의 위헌성을 호소하고 있다.

頭痛은 “腦질환이 원인이다” 주장

세계의 두통치료전문가들은 두통증상이 정신과 신체의 상관관계에 의해 일어난다는 통념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유전되는 뇌질환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제5회 두통치료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1천2백여명의 연구원 및 의사등 전문가들은 두통이 정신적 요인에 의한 신체적 혼란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같이 주장하고 있다.

美國두통치료협회 회장인 조엘 세이퍼씨는 “두통만큼 사회통념에 가려져 잘못 치료되고 있는 증상은 없다”고 지적하고 “불필요하면서도 부적절한 치료때문에 수백만달러가 낭비되고 필요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많은 환자들의 경우 두통의 실제원인을 이해하고 있는 의사를 만나야만 고통이 멎을 것이라고 부언했다. 74

